

Analysis of Religious Education Status as General Education and Research on Improvement

Kwonsoo Na¹, Jaekeun Youn^{2*}

^{1,2}Daeji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based upon the conventions of general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and to present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CONTENTS When compared to similar studies at secondary schools, studies on religious education conducted at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Research on religious education in universities is usually limited to reports on the current status of general education as implemented by private universities and introductory research on prospects and tasks. This is because, unlike 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 tends more towards implementing the founding ideology or educational goal of a given school. However, as societal interest in religious education at private universities increases, so too does attention to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RESULTS This study carefully analyzes the problems faced by the current religious education systems used by universities and then presents detail-oriented alternatives.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religious education as the essence of general education, this study becomes an opportunity to expand and deepen interest in religious education in the future and in discourse on academia.

KEY WORDS General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Religious Cultural Literacy, Multi-cultural Society, Religious Pluralism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A8047250).

* **Corresponding to** Jaekeun You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jin University)

E-mail : jkyoun@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나권수¹, 윤재근²

¹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²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그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중등학교에 비해 대학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개 종립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현황 보고 및 전망과 과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은, 학생이 특정 대학을 선택했을 때는 그 학교의 설립 이념이나 교육 목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립 대학의 종교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찬반양론이 쟁점화되고 있다.

결론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의 현행 종교교육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교양교육의 본질로서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논의를 확대 심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주제어 교양교육, 종교교육, 인성교육, 종교문맹, 다문화사회, 종교다원주의

I. 문제 제기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은 2022년 현재 총 413교이다(Higher Education in Korea, 2022). 이 중 종립대학은 유교 1개, 불교 10개, 개신교 109개, 천주교 15개, 원불교 5개, 대순진리회 1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개, 기타 교단 2개로 145교이다. 전체 대학의 35.1%이며, 사립대학 355교를 기준으로 40.8%에 이른다(Ko, Kang, & Cho, 2018: 194-197). 이는 종립사학이 고등교육에 상당 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초중등학교 종교계 사학까지 포함하면 국민교육에 대한 전담률은 이보다 상회할 것이다(Na & Youn, 2019: 131).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중등학교 종교교육’으로 검색하면(2022.11.15. 기준), 국내학술논문 148편, 학위논문 213편 등으로 다수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동향은 종립학교 종교교육에 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의 방증이라 하겠다.

종교교육을 둘러싼 담론들은 종교교육의 자유 대 학생 인권, 종교교육의 무용론 대 재구성,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 대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등의 구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¹⁾ 이를테면 교육과 종교의 분리 문제, 학교교육의 공공성 문제,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인권 문제, 종교 교과교육의 정체성 등으로 언론 매체나 시민단체를 통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종교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층위의 담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종교교육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도 종교 계통의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암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교육이 우리 교육사에서 문제화된 것은 기독교 계통의 근대적 교육기관에서 바이블을 중심으로 한 선교교육에서 비롯된다(Kang, 2009: 34). 이후 1970년대 중등교육 평준화정책과 맞물려 학생들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학교에 배정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04년 서울의 한 종립학교 학생이 학내 방송을 통해 예배를 거부하겠다고 하며 종교의 자유를 요구한 사건이 크게 대두되었다. 물론 이 사건 전후에도 학교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문제는 계속 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다방면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학계의 연구는 중등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과 교과의 타당성 연구 및 그 방법론에 관한 개선이 주를 이룬다.²⁾ 종교교과교육의 제도 변화를 추적하고 각급 학교에

1) 본 논문에서는 종교교육을 그 내용과 기능에 따라 종파교육으로서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 종교성의 형성과 고양을 위한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 in narrow meaning), 종교의 문화 현상에 관한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Park, 1997: 14-15).

2)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선영(1998),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정진홍(2002),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의 제문제,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 편) 41; 강돈구(2005),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문화관광부; 고진호(2006),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23; 김귀성(2010),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 서울: 문음사; 윤재근(2010),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 34; 고병철(2012),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류

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분석하여 수정을 요구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현행 학교 종교교육의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또는 신앙교육이 아닌 종교문화교육,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s), 영성교육, 시민교육, 인성교육 등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즉, 학교 종교교육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직시하고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을 간과하고 있다. 중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은 학생이 특정 대학을 선택하였을 때는, 그 학교의 설립 이념이나 교육 목표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특정 종교의 신앙을 교육의 토대이자 목표로 삼고 설립된 학교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에서는 이른바 ‘선교’를 위한 종교 교과목들이 교양교육의 영역에 편성되어 있다. 사립대학의 설립이 서양 근대 문명의 수용과 특정 종교의 포교와 맞물려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더욱이 “사립대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학위수여이행, 대법원 1998.11.10. 선고 96다37268 판결)는 대학 내 종교교육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또한, 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대학 교육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25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6조 등을 통해 종립대학은 학칙에 종교교육을 명시할 경우 이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은 해당 교육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다.³⁾ 이를테면 국공립학교⁴⁾와 달리 사립대학의 경우 종교교육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는 2001년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연구로 심화하지 않았다(<표 1> 참조). 2018년 ‘대학 교양교육과 종교학’이라는 한국종교학회의 기획주제로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고, 2019년에는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한국종교

성민(2013),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종교문화연구 20; 고병철(2014), 종교교과교육과 종교교과교재론, 서울: 박문사.

3)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4)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 연구 현황

<Table 1>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Religious Education as General Education

분야	논문제목	학술지	연도
유교	유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	2001
불교	한국의 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	2001
	불교종립대학 지방캠퍼스 신입생 대상 불교교양 강좌 운영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59	2019
	불교계 종립대학의 종교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63	2020
천주교	대학에서의 종교교육교육: 가톨릭대학교의 현황과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12	2001
	가톨릭 대학의 종교교양교육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62	2020
개신교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	2001
	다문화 사회와 기독교 대학의 교양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3	2010
	21세기 종교에 대한 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	교양교육연구 14	2020
천도교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 천도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12	2001
원불교	원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원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12	2001
	교양교육으로서 원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64	2020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	2001

육학회, 연세대 교양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교양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로 종교에 대한 이해가 현대 교양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대학 종교교육에 관한 논의가 한국종교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다루어진 주제의 면면은 특정 종교의 종교교육과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종립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현황 보고 및 전망과 과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교양교육의 본질로서 종교교육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방향성 제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교의 대체과목 등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20진정0211800, 22진정0211700)을 통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종립대학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지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요컨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학생의 종교적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관련 단체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서 채플 수업의 찬반양론이 쟁점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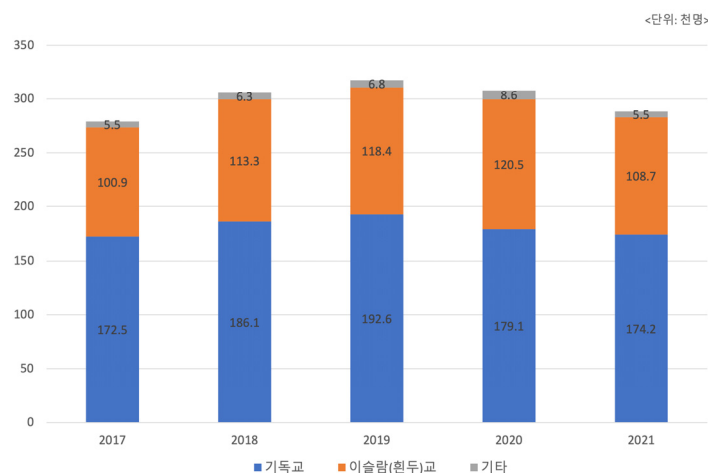
그럼에도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의 연계성이 대두하면서 전인교육, 정서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에서 종교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가

장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인성의 개발이나 함양이 제기됨에 따라 인성교육과 종교교육의 접점을 모색하는 다방면의 연구가 입체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종교문맹률의 증가와 코로나 시대 종교의 폐해는 우리사회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반추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양교육과 종교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학의 현행 종교교육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교양교육의 본질로서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논의를 확대 심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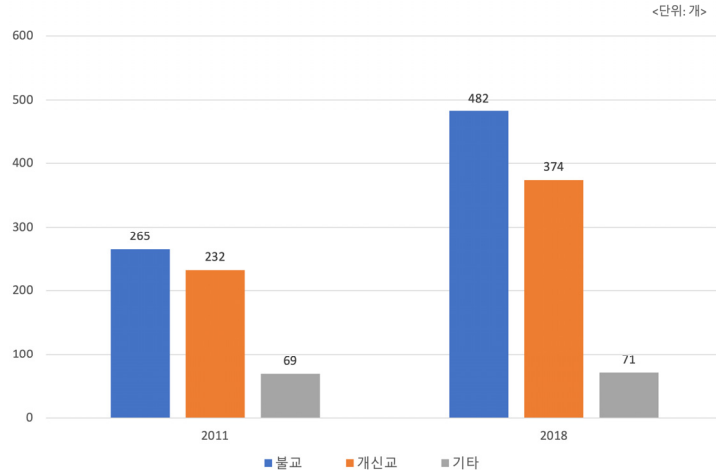
II.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종교교육

한국사회의 종교지형은 세계의 종교동향과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종교인구가 단기간에 급감하고 있는 반면, 종교 교단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추세는 종교 문화의 유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표 2>, <표 3> 참조). 유교·불교·기독교와 같은 이른바 세계종교들과 19세기 이후 동화를 위시하여 발흥한 한국 자생신종교, 해외 유입신종교, 그리고 파생신종교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어 종교 백화점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종교별 교단현황이 불교 482개, 개신교 374개, 기타 71개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인다(Ko, Kang, & Cho, 2018: 98). 이러한 수치는 우리사회의 종교문화가 더욱 다원화·다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종교들

<표 2> 이민자 종교현황
<Table 2> Immigrant Religion Status



<표 3> 종교 교단현황
 <Table 3> Status of denominations by religion



이 공존하면서도 어느 한 종교 또는 신념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다(Yoon, 1991: 201-203).

모든 종교는 평화를 지향하며, 각 종교는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하지만, 종교 간 평화의 합은 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종교는 궁극적 가치체계이며 절대 신념체계이다. 개별 종교들은 그들만의 신념체계에 입각하여 보편적 윤리로서 현대 문명의 질환을 치유하고 다가올 미래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종교는 자기 신념체계의 외적 요인과 대응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상대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다(Yoon, 1991: 210). 이는 관점을 달리하면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 간의 조우는 평화가 아닌 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스 쾅(Hans Küng)의 “종교 간 평화 없이는 국가 간 평화도 있을 수 없다(There can be no peace among the nations without peace among the religions).”는 메시지는 공공선을 지향하는 종교가 인류 공동체의 안정과 연대를 저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Küng, 1991: 15).

지금 우리는 종교가 사회통합보다는 사회균열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종교시설로 분석된 바 있다(Korea Policy Briefing, 2021.01.21.). 예컨대 신천지, BTJ열방센터, IM선교회 등과 같은 사례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제는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번 코로나사태로 재차 확인된 셈이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갈등 유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유례없는 압축성장과 단기간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사회를 다중적이며 중첩된 구조로 변모하게 했다. 구조적 복잡성과 사회구성원의 가치 다원화는 이념, 세대, 계층 그리고 젠더 간의 갈등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표출되었다. 이

제는 여기에 종교가 사회균열의 축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Park & Kim, 2013: 241-244). 종교적 갈등은 종교조직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종교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일부 종교인들의 이웃종교를 향한 배타성 증폭 등이 그 근저에 있다.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서 이러한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기에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종교지형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19만 명에 이르렀고(Ministry of Justice, 2022.11.22.), 외국인과의 결혼 이민자는 16만 명, 국제결혼은 13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E-Country Indicator, 2022.08.01.).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세계화로 인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동시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편견, 차별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이들이 견지한 종교적 신념과의 분쟁은 매우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일례로 대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무슬림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대체로 이 같은 사회갈등을 대수롭지 않은 어떤 현상 정도로 이해하거나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편입은 일부 종교인들의 소수종교를 향한 배타적 대응으로 강하게 표출되어 가고 있다(Yoon, 2015: 207). 또한,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절대적 진리로 보는 계층이 점차 늘고 있어 타종교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 대한 성찰이 요청된다. 배타성에 기반한 종교 인식은 타종교를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적대감의 누적은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전통 종교를 비롯하여,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의 자생신종교, 유교계, 불교계, 기독교계의 파생신종교, 국제도덕협회, 천리교, 한국 SGI(창가학회)와 같은 유입신종교 등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공존하고 있다. 더욱이 제도종교에서 탈피한 이른바 ‘무종교의 종교’(religion of no religion), ‘종교가 아닌 종교’(the religion of no religion) 혹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종교’가 등장해 종교 영역에 대한 새로운 변이가 진행되고 있다(Seong, 2017: 119). 하지만, 우리사회는 현재 소수 종교에 대해 그릇된 정보가 만연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언론의 곡해와 왜곡은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기도 한다.

다문화와 다종교사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종교 일반에 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문맹을 안고 있는 셈이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듯이, 종교에 대해 모르면 ‘종교적 문맹(Religious Illiteracy)’이라고 한다(AAR, 2010: 4). 종교적 문맹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함께 종교에 관한 잘못된 지식까지 포함한다. 종교적 문맹은 직장이나 학교 등의 일상 영역에서부터 국가 간 국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차별과 갈등을 양산한다.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은 바로 종교에 대한 무지와 종교 간 갈등의 결과일 수 있다.

알리 아사니(Ali S. Asani)는 종교, 문화, 인종, 민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러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더

육 심각한 곡해와 오해에 빠져 사회 간, 국가 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무지의 충돌’로 진단했다. 그는 무지의 충돌을 유발하는 요인을 종교 문맹으로 적시하고 종교를 비판적으로 고민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종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Asani, Lee trans., 2012: 253-254). 만약 우리사회도 자기 종교만을 고수한 채 무절제한 자기 확장과 세계관을 강요한다면 종교 간 마찰은 불가피하다. 종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학문적(academic)이고 비신앙적(non-devotional) 관점의 ‘종교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III.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현주소

대학 교양교육이 본래의 교육적 의미를 상실하고 직업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2010~2014), 대학구조개혁평가(2015~2017), 대학기본역량진단(2018~2022)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였다. 학력인구 감소와 오랜 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은, 정부의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이 도입될 때마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춰 대학을 변화시켜 왔다. 재정지원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통제는 대학의 자립성과 자율성 저하를 초래했으며,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획일화로 이어졌다(Cho, Shon, & Hwang, 2022: 32).

더욱이 대학 교육정책이 고등직업교육 관점에서 추진됨에 따라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과 대학의 고등교육 구분이 모호해졌다. 더불어 201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문대학이라는 명칭 대신 ‘대학교’를 사용하면서 4년제 대학은 연구,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이라는 공식이 희미해졌다. 물론 직업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란 역할이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수요나 환경에 근거한 일관된 기획보다는 정치적 이슈나 현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기도 하였다(Ko, 2019: 65).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이 곧 직업교육으로 전환되었고, 반대급부로 대학은 국가의 요구를 이행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대학 교양교육의 의미와 역할 또한 변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양교육은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한 통일적 세계관 내지 인생관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Kim, 2001: 8). 따라서 교양교육은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모든 인간의 공통되는 경험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으로 해석한다. 한편으로는 인문학(humanities)이 ‘인간다움’을 지칭하는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에서 유래하였듯이 언어·예술·역사·철학·종교 등을 포함하는 인문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용적·도구적 교육보다는 인간과 인간이 속한 사회에 대한 이해, 혹은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교양교육은 전인교육으로서 올바른 인간상 정립을 위한 인간학적 측면의 교육인 것이다(Park, 2001: 52).

하지만 생존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이 인문학 관련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관련 교과목들을 모아 교양학부 혹은 교양전문대학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수과목에서 제외하거나 선택과목 정도로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문교육 혹은 교양교육의 창의융합 등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고, 이들의 효용적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여기에 각 대학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해 역량기반교육이 대학교육 시장에 적용되면서 창의·융합·인성 등을 교양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핵심역량 달성을 교양교육의 교육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제 대학 교양교육이 근본적이면서 전면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교양교육이 기초소양교육의 단계를 넘어 전인적 통합교육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는 ‘교육의 목적’을 논하면서 “교양은 사고의 활동이며 아름다움과 인간적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다. 주어진 모든 단편적인 지식은 교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순히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다.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간이다. 전문지식은 인간에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교양은 인간을 철학만큼 깊이, 예술만큼 높이 이끌 것이다(Whitehead, 1963: 13).”라고 하였다. 그의 말은 전체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준다. 특히 교육이 교양과 전문적 지식을 함께 구비한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교육 현실과 부합한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지식의 반감기’(Half-Life of Facts)가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이 배움과 동시에 이미 낡은 지식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개별적 지식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를 융합하는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 기술이나 단편적 정보가 아닌 무한히 양산되고 있는 지식을 융합하는 역량과 이에 맞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지식의 형태가 융합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공교육이나 직업교육 못지않게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이유이다(Na & Youn, 2019: 129, 136)

이러한 맥락에서 교양교육은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보편적인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Son, 2020: 16).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교육의 본질에 다가서게 된다. 이러한 전인교육을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교육이 바로 종교교육이다. 이미 인성교육을 종교교육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시된 바 있다(Sung & Park, 2015: 1). 이들 연구는 인성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를테면, 종교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고양하고 인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인성교육을 위한 모델을 종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종교교육 영역에 도덕과 정서를 포함한 인성교육의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천력 있는 도덕교육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Ko, 2014: 331-332).

주지하듯이 종교는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념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으며, 비록 그 교리적 근거와 내용은 다르지만,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지향한다(Na & Youn, 2015: 78). 종교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 프레데릭 스트렝(Frederick J. Streng, 1933~1993)은 종교를 ‘궁극적 변화에의 수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종교를 인간 본질의 궁극적인 변화의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발현하게 하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Youn, 2007: 246).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양교육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실존적 물음에 초점을 맞출 때 교육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Kim, 2001: 24). 종교교육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전문교육이 아니고, 일정 직업을 염두에 둔 직업교육이 아니며, 소수 인원에게만 시행되는 특수교육도 아니다. 종교교육은 누구나 그가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견과 자질, 그리고 삶의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받는 교양교육이다. 이 점에서 종교교육과 교양교육은 하나의 정점에서 만난다(Son, 2020: 2).

IV.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종교인구가 44%로까지 감소하고, 청소년들의 입시와 취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실용적인 종교교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화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추이와 맞물려 제도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인과 종교공동체는 우리사회의 빠른 변화와 시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Ahn, 2020: 219). 많은 대학이 학생수급과 경쟁력 확보에 급급한 상황에서 인격도야와 같은 교양교육보다는 실용적 과목으로 교양교육을 대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은 종교와 연관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활 등을 토대로 종교와 인간에 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데에 있다(Ko, 2020: 151). 따라서 종교의 교리와 의례, 공동체에 대한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종교의 교육’은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대학교육으로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특정 종교에 관한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교육방식도 제약이 있다. 이에 특정한 종교의 가치에 건학이념을 두고 세워진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종교를 공감적이며 객관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Ahn, 2020: 219-220).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종교 관련 교양교과목을 살펴보면, 종교사, 종교현상학,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종교철학을 비롯해 종교와 평화, 종교와 문학, 종교와 예술, 종교와 과학 등과 같은 융복합적 교육을 시도한다. 하지만, 개설 과목의 종류와 분반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 설립 주체와 관계된 ‘종교의 교육’ 또는 ‘종교적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 우선 종립대

<표 4> 종교 관련 교양교육 과정
<Table 4> Religious education course

대학명	설립교단	이수 구분	이수 영역	과목명
성균관대	유교	교양	인성	▪ 성균논어
			인간/문화	▪ 비교종교학의 이해 ▪ 종교와 유럽문화
동국대	불교	공동교양	자아성찰	▪ 자아와 명상 1/2 ▪ 불교와 인간 ▪ 만해와 불교
		일반교양	인문	▪ 만해와 불교의 민족운동 ▪ 만해와 근대지성 ▪ 근현대고승열전 ▪ 불교와 인지과학 ▪ 만해의 생애와 사상 ▪ 인도불교이야기 ▪ 현대요가와 자기이해
			사회	▪ 종교와 법
			자연	▪ 붓다와 인공지능 ▪ 종교와 과학
			문화	▪ 일본, 문학, 그리고 불교
		교양필수		▪ 마음공부 ▪ 불교와 사회
가톨릭대	가톨릭	기초교양필수		▪ 인간학 1/2 ▪ 영성 I (삶·영혼 그리고 예수) ▪ 영성 II (생명윤리학)
		중핵교양필수	인문학심교양	▪ 문학과 종교 ▪ 종교와 평화이해
서강대	가톨릭	공동선택		▪ 종교와 세계문화 ▪ 신학적 인간학 ▪ 진·선·미·성 ▪ 그리스도교 윤리 ▪ 그리스도교 신앙과 영성
		자유선택		▪ 삶과 죽음 ▪ 한국문화와 종교 ▪ 종교, 폭력, 평화 ▪ 영성수련

<표 4> 종교 관련 교양교육 과정 (계속)

<Table 4> Religious education course

대학명	설립교단	이수 구분	이수 영역	과목명
강남대	개신교	기초교양		- 채플 I/II/III/IV - 기독교와 현대사회
		균형교양	인간과 사회	- 인간과 종교 - 기독교 명저 읽기
계명대	개신교	공통교양		- 채플 1/2 - 기독교의 이해
		일반교양		법과 종교
연세대	개신교	공동기초		채플
		교양기초		- 기독교와 현대사회 - 기독교와 세계문화 - 성서와 기독교
		대학교양		- 기독교와 서구문명 - 여성주의와 기독교 - 기독교윤리와 사회적 책임
이화여대	개신교	이화진선미	인성	기독교와 세계
		융복합교양	역사와철학	- 인간과 종교 - 종교와 문화 - 인공지능시대의 과학과 종교
원광대	원불교	교양필수	덕성	종교와 원불교
		교양선택	수련과 봉사	- 삶의 비밀 - 선과 인격수련 - 마음과 행복 - 한국종교문화와 원불교(영어) - 인성교육과 마음치유
대진대	대순진리회	교양필수		대순사상의 이해
		교양선택	균형교양	- 인간과 종교 - 종교와 예술 - 다문화사회와 종교문화
선문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공동체인성		- 채플 -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I/II
		균형교양	인문학	철학과 종교

학에서 개설 운영하는 종교 관련 교양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목표는 비전공자나 비신앙인에게 종교문화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인간의 가장 복잡하고도 심오한 사상과 행위를 수반하는 종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인간과 문화에 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현대 사회에서 노정되고 있는 종교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목적은 바로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게 하는 데 있다. 즉, 종교교육은 신앙 일변도의 교육이 아닌 종교에 대해 폭넓고도 균형 있는 교양을 추구해야 한다(Youn, 2019: 132).

하지만, 대다수의 종립대학에서는 종교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교육은 종교를 인류 문화의 양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흔히 설립재단의 특정 종교이념을 표방하고, 이를 주입하는 일방적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교육 제도로 이해되기 쉬웠고, 종교교육 자체를 폄하하는 분위기가 마저 조성되었다.

개별 종교전통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화(Indoctrination)와 교육은 구분되어야 한다(Kim, 2006: 10). 대학은 종교가 다른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모이는 학문의 전당이다. 20대 종교인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젊은 층의 탈종교 현상은 합리적 사고의 유행과 종교 권위의 상실, 배금주의로 인한 종교의 세속화, 집단에 구속받지 않으려는 개인주의 성향의 팽배, 종교인의 부도덕한 행태와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회의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Na & Youn, 2019: 123). 이 같은 실정에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된 종교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지성의 발달을 유도하기보다는 종교에 대한 독선적 편견을 심어주는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종교적 심성을 함양하고 여러 종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이웃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교양교육에 기초해야 한다(Ko, 2020: 151). 종교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종교를 모르면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종교에 관한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yu, 2013: 6-18).

종교교육은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으로서, 그리고 대중에게는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교 상황과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면 공통된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선 지식 전달에 치중한 강의식 수업방식의 개선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다. 종교에 대한 호기심과 특별한 관심이 없는 대다수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면, 종교교육을 향한 일종의 거부반응과 태도는 예견된 것이다. 말하자면, 자발적인 참여를

5) 일반대학 중 설립교단과 관련한 전문·특수 교육기관은 배제하였으며, 나머지를 선별하여 각 대학 홈페이지의 종합강의시간표와 <표 1>의 관련 논문을 참조하였다(Na & Youn, 2019: 131-133).

유도하고 권면하는 면학 분위기의 조성이 쉽지 않다. 종교현상은 교리, 신념, 의례, 공동체의 차원으로 구성되지만, 순수한 요소나 하나의 차원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술, 음악, 건축, 문학 등의 다양한 문화로 표현되며 종합예술로 구현되기도 한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여러 분야와 관련을 맺으며 우리의 일상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종교가 우리 일상의 밀접한 문화 현상임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수법 설계와 종교문화콘텐츠 활용이 필요하다. 다문화적 차원의 접근에서 이루어진 종교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종교를 체계적이고 다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자의 자질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종파교육과 학교 종교교육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종교’라는 공통의 과목 명칭 아래 서로 상이한 내용을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Kang, 2009: 36). 종교 교사가 주로 종교 계통의 대학에서 양성됨에 따라 같은 종교 교사라도 교육받은 내용은 크게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크게 다르다. 종교 교사가 오히려 종교인, 성직자, 또는 선교사로 인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정한 종교를 비판 없이 전달하는 고백적인 교육 방식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에게 종교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한층 더 복잡하다. 종립대학에서 건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일반 사립학교나 국공립대학에서도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고등교육 기관에서 종교 일반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학생들은 물론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종교 전반에 무지하게 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한다.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문화와 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며 서로를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종교교육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정착될 때 범시민교육의 하나로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공공의 영역에서 교육 가능한 교양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Chung, 2002: 270).

현대사회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주장, 해석이 얹혀있다. 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특성의 하나는 ‘다름’이다(Park, 2021: 87-88). 다름이 부각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다름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종교 간 협력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이제 종교교육의 의무라 하겠다. 종교교육이 종교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한 채 특정한 종교의 교리나 규범 또는 의식 등의 학습에 머문다면, 교양교육 본연의 이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종교교육을 종파교육의 교두보로 삼는 시각에서 벗어나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건전한 종교관 정립에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할 때이다. 종교교육이 종교의 차별을 넘어서는 진정한 교양교육, 즉 자유교육과 일반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에 내포된 보편적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Son, 2020: 1-2). 그렇게 할 때 종교 간 대화와 상호 이해를 견인하는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이 구현될 것이다

V. 결 론

다종교 상황 속에서 자기 종교가 여러 종교 사이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웃 종교와 소수 종교의 역사적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바로 이러한 사회로 우리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종교에 대한 무지는 개인의 지적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요컨대 종교에 대한 몰이해는 종교에 대한 편견을 낳으며, 이 편견은 다시 종교에 대한 편향과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다종교사회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다문화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복잡한 종교적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절실하다.

그런데 세계화에 따른 종교 간의 공존과 그 결과 발생한 내재적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상이하고 이질적인 종교문화를 융합하고 조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집단지성을 발현한다면, 인류 문화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 같은 일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이 바로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에 있다. 따라서 교육학적 입장에서 종교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점검하고 그 방향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고등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토대로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주목하였다.

대다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은 특정한 종교적 배경 아래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종교교육은 종교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목으로, 혹은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도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오히려 종교 간 평화가 아닌 반목을 조장하는 교육, 종교적 문맹을 양산하는 교육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종교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학 교양교육의 시대적 요구와 종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제는 특정의 종교전통을 주입·전파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계와 종교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자기 종교가 종교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여러 종교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종교적 중립성이 확보된 보편적 교양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종교교육은 우리사회의 소통을 주도하고, 다가올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공공의 가치제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Ahn, S. (2020). A New Direction of General Education about Religion in the 21st Centur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 219-237.
- Asani, A. *Enhancing Religious Literacy*. 이창신 옮김 (2012). 하버드 교양 강의. 파주: 김영사.
- Cho, N. M., Shon, D. L., & Hwang, M. K. (2022). A Study on the Concept and Validity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6(2), 31-48.
- Chung, C. H. (2002). Teaching Religion: Its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 Korea.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Journal*, 41, 269-338.
- E-Country Indicator (2022.07.26.). Current Status of Marriage Immigrants Retrieved 2022.11.15.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 E-Country Indicator (2022.08.01.). International Marriage Status Retrieved 2022.11.15.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 Higher Education in Korea (2022). Universities subject to Public Disclosure. Retrieved 2022.11.15. from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30/intro.do>
- Kim, Y. J. (2001). Liberal Education in University and Relig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2, 7-25.
- Kim, Y. P. (2006). Meaning of Freedom in Religion an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3, 1-16.
- Ko, H. W. (2019).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in Korea, Efficiency or Equity?.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8(4), 59-89.
- Ko, S. Y. (2020). Religious Education of Won-Buddhism as a Liberal arts: Focused on the case of Wonkwang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 145-170.
- Korea Policy Briefing (2021.01.21.). 45.4% of COVID-19 group infections in one year... Most religious facilities. Retrieved 2022.11.15. fro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2968#sitemap-layer>
- Küng, H. (1991). *Global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 New World Ethic*, New York: Crossroad.
- Ministry of Justice (2022.11.22.). October 2022 Immigration Foreigner Policy Statistical Report. Retrieved 2022.11.15. from <http://www.moj.go.kr/bbs/immigration/227/564998/artclView.do>
- Na, K. S. & Youn, J. K. (2015). Method to invigorate personality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9, 75-101.
- Na, K. S. & Youn, J. K. (2019). Task and 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as a College Liberal

- Study with Regard to the Increase of Religious Illiteracy rat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0, 119-142.
- Park, B. J. & Kim, B. S. (2013). Religion as An Axis of Social Cleavage: Focusing on Inter-Religious Differences in Value System and Attitude.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27, 221-252.
- Park, S. Y. (1997).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 7-21.
- Park, S. Y. (2001). Buddhism and Liberal Education in the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2, 51-71.
- Park, J. W. (2021). Two Understandings of Difference and the Role of Gen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6), 87-101.
- Ryu, S. M. (2013). The Significance and Reality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0, 1-34.
- Seong, H. W. & Park, B. S. (2015). Character-Education Promotion Law and religious edu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charact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9, 1-22.
- Son, D. H. (2020). Religious Education as Liberal-General Education. *Journal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1(1), 1-20.
- The AAR Religion in the Schools Task Force (2010).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 Whitehead, A. N. (1963).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 Mentor Book.
- Yoon, S. Y. (2015). An Analysis of Gallup Korea Surveys on Religious Issues and Its Problems During Last 30 Years Period. *The Critical Review of Religion and Culture*, 27, 189-227.
- Youn, J. K. (2007). Theory of Religious Education in Daesoon Thought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4, 245-263.
- Youn, J. K. (2019). Religious Education and Human Rights in Daesoon Though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27, 127-154.
- 강돈구 (2009), “한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 종교교육 비교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ang, D. K. (2009). Religious Policy and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Comparativ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고병철 (2014).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Translated in English) Ko, B. C. (2014). *Theory of Religious Subject Education in Korean Secondary Schools*. Seoul: Bagmunsa.

- 고병철, 강돈구, 조현범 (2018).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Translated in English) Ko, B. C., Kang, D. K., & Cho, H. B. (2018). *State of Religion in Korea in 2018*.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성해영 (2017). “종교를 넘어선 종교’와 새로운 영성”.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한국신종교, 치유를 말하다. 서울: 모시는사람들. (Translated in English) Seong, H. Y. (2017). *Religion Beyond Religion and New Spirituality*. The Resea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ed.). *Korean New Religion Talks About Healing*. Seoul: Mosineunsaramdeul.
- 윤이흠 (1991). 한국종교연구 권1. 서울: 집문당. (Translated in English) Yoon, Y. H. (1991). *Korean Religion Study Vol.1*. Seoul: Jibmundang.